

“자치단체장 도전” 고위공직자 출사표

광주시철도건설부장·순천부시장 등 잇따라 명퇴

행정 전문성 장점 부각... 전직 관료들도 움직임 분주

내년 6월12일 열리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고위 공직자들의 명퇴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신기(59·2급) 시민안전실장과 장성수(57·3급)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강 실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장 본부장은 광산구청장 선거

에 출마할 예정이다. 강 실장과 장 본부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경선전에 뛰어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권오봉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명예퇴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문인(59)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명예퇴직한 뒤 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내고 바다 민심을 다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도 마친 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경선을 준비중이다.

공로연구중인 천제영(60) 전 순천부시장도 12월 퇴임과 함께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춘(59) 전남도청 중소기업과장도 연말께 명예퇴직한 뒤 장흥 군수에 도전할 예정이다.

각 정당별 공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공직사회 시한(선거일 90일 전, 2018년 3월14일)이 다가올수록 행정 전문성을 앞세운 현직 고위 관료들의 출마 열풍은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 관료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배용태(62) 전 전남도 행정부시장은 목포시장 선거에, 이승욱(60) 전 여수부시장은 강진군수 선거에, 양재승(59) 전 해남부

군수는 해남군수 선거에, 박준조(60) 전 전남공무원연수원장은 담양군수 선거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또 서종진(63) 전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은 광산구청장에, 최영열(54)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은 영암군수에, 노두근(64) 전 강진부군수는 함평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관료 출신들의 출마가 많고, 내년 지방선거는 특히 3선 제한과 중도 낙마 등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기초단체장이 많아 관료 출신들의 출마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오광록기자 kroh@



박원순 서울시장 국감 출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자료 요청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초반부터 정화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연합뉴스

‘朴 출당’ 최고위 찬반기류 팽팽...제동 걸리나

최종절차 놓고도 해석 분분...통과 전망 안갇속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최고위원 내에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서정원·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지난 23일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알렸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열흘 뒤인 11월1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응답이 없을 경우 2일 자정부터는 제명 처리된다.

당헌·당규상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위해 윤리위원회의 결정 후 최고위 의결을 또 거쳐야 한다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따라서 지도부는 추후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고위 결정을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처럼 절차상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부분이 오히려 문제만 꼬이게 했다.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돼 홍준표 대표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25일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도부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찬반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5명 정도이다. 홍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철우 최고위원 등 3명은 출당 찬성파로,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은 출당 반대파로 각각 구분된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4명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와 친박(친박근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류여해 최고위원은 출당 반대파, 이재영 최고위원은 출당 찬성파로 각각 기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분명치 않지만 내년 경북도

지사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어 TK(대구·경북) 민심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제21조 2항)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탈당 권유 징계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제21조 3항)는 내용도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의 경우 윤리위가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 최고위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위의 의결을 확정하는 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반면, 친박은 탈당 권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제명하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사무총장 김교홍 내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리시야 대사로 부임하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25일 밝혔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등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를 잘 이끌어 나갈 책임자”라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제17대 인천서기·강화갑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유치특위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총회 국외방문단장, 인천시 정부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이 통과되면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주선 “외교부 비영리법인 36개 해산절차 진행”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가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중 14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 의당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502개의 법인 중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 502개의 법인 중 399개만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3개 법인(20.5%)은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연속으로 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으로 무려 54개나 됐다. 외교부는 법인담당자 실무회의와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을 각각 개최, 현재 36개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36개 법인 중 14개(38.8%)가 이명박 정권 이후 설립된 법



인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사가 대표로 대외에 국제개발협력센터나 G20 정상회의의 국민지원단(현 사단법인 위크엔젤스)은 2012년 설립됐으나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외교부에 등록된 법인은 14개로 매년 2~3개만이 신규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도 되지 않아 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부의장은 “비영리법인은 외교부의 보증으로 법적 인격이 부여된 만큼 그에 대해 관리감독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연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18개 법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인물

서울대 등 학종 문제점 지적·‘학교 석면’ 부실 관리 질타

국민의당 송기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적폐청산, 안보문제, 탈원전 정책 등 대형 이슈마다 한치의 양보없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감’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도 국감 첫날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공방으로 파행된 것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등 쟁점마다 첨예한 공방이 계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문위 소속 송기석 의원은 판사 출신다운 성실한 자세와 논리정연한 질의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단연 눈길을 끌었다.

감정 섞인 고함을 지르기도 하는, 절제된 발언을 구사하면서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선 날카롭게 피감기관을 추궁했다. 사전 준비와 치밀한 질의가 뒷받침되다 보니 피감기관들로부터 ‘잘못을 인정한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수시로 이끌어 내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송의원을 두고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이 정책 국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서울대·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학 11곳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응시자 학부모 직업을 노출하고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굴해 교육부 국감장에서 지적하면서 언론과 교육계에서 주목받았다.

교육당국의 ‘석면학교’ 부실 관리를 질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주력했다. “지난 여름방학에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공사 완료 후 석면물질이 남아있는 학교가 410개나 된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학교 석면관리’의 문제점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문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국감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종합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낸 데 이어, 국감 기간 ‘사드 관광영향 분석 및 대책수립 방향’, ‘대한민국 문화도시 브랜드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경영 전략’ 등 정책 자료집 3권을 발간,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자사로 36